

이기는 삶

멋지게 지는 법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다. 순탄한 삶이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쉬운 일보다는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인생(人生)은 고해(苦海)의 바다'라고 말한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면 할 수 있다.

최선다한 패배는 패배 아니다

운동 경기도 권투나 유도, 마라톤 등 혼자서 하는 경기가 있고 축구, 야구, 농구처럼 여럿이 힘을 이루어 하는 경기도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즌이 되면 온 국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열렬히 응원한다. 특히나 애국심이 강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대표다. 선수와 똑같이 승리에 열광하고 패배에 가슴 아파한다. 전력 이 열세인 한국 팀이 강한 팀을 이겼을 때의 환호는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막상 패했을 때는 상실감에 빠져 좋지 않

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중앙선으로 악수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향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승패를 떠난 진정한 스포츠맨의 모습이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 한 번의 패배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패배를 모르던 핵주먹 타이슨이 더글러스에게 KO패를 당하는 장면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이 역시 포기하지 않은 더글러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경기 초반 타이슨의 주먹을 연어맞고 쓰러져서 심판이 카운터를 아홉까지 세고 열을 세기 직전에 종이 울리는 바람에 겨우 KO패를 면한 더글러스였다. 그러한 더글러스에게 타이슨은 최초의 KO패를 당했던 것이다.

한 번도 꺾어보지 못했던 KO패를 당한 타이슨의 절망은 실로 대단했을 것

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때의 쓰러린 패배도 하나의 추억일 뿐이다. 인생 종전 것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므로 한 경기에 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경기에 또 이기면 된다. 비단 이러한 이치는 운동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에디슨은 100번 실패했다면 101번째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단한 노력과 실패를 거듭한 후의 결과는 그 자체로 승자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끝에 간발의 차이로 이기지는 못했어도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아깝게 2위를 한 이상화를 두 팔로 안아주는 고다이라의 모습은 평창올림픽 최고의 장면이 되어 전 세계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말 멋있고 마음 따뜻한 장면이었다.

최선을 다한 후의 패배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자를 축하해 주자. 내가 항상 이길 수는 없으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나보다 잘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패했을 때는 기꺼이 나의 패배를 인정하자. 그것이 멋지게 지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becoming 'One' 우주 하나가 되는 원리!

우주는 셀 수 없는 은하계의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다.

▶ The cosmos is composed of uncountable galactic systems. But, it is very easy to draw the structure of the cosmos.

동양철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 Oriental philosophy tries to understand the whole universe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그러한 생각은 천국, 지구 그리고 인간이 하나라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 This idea is based on the faith that Heaven, Earth and the Human are 'One.'

따라서 그것은 우주 전체의 원리를 인간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러한 생각은 요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 It tries to describe the principle of the whole universe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human being. Such idea is reflected in Yoga, too.

요가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한다. 영생학의 관점에서 그것은 정확하다.

▶ Yoga says that the human body is a 'small universe.' From the point of view in immortality, that is quite right.

우리 몸의 원리는 태양계, 우주계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 The principle of your body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solar system, the galactic system and the cosmos.

우리가 지구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전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 You will be able to see the structure of the cosmos if you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earth, and you will be able to know what the cosmos is if you understand the human being perfectly.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이 전 우주의 운명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을 때, 우주(천지)만 물이 하나가 된다.

▶ The Victor Christ says that the human being is the Master of the whole universe. After all, the fortune of the whole universe depends on the mind of human being. When all the people of God become 'One' mind, the things in the universe will become 'One'.\*

인간의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은 실로 놀라워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가능성을 믿고, 불로장생 도전

팔만대장경의 그 방대한 분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 뽑으려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압축한 줄어이다.

인간의 마음의 힘과 능력이란 참으로 놀랍다. 인류가 이룩한 문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위대한 문명의 발단은 소소한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탄을 금할 길 없다. 이것이 마음의 신비한 힘과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 최대의 행복이 되는 불로장생의 실현 가능성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가능성에서 시작이 된다. 이 첫 시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 수명 무한연장의 길도 열어 젖혀 놓았다.

현대판 불로장생을 꿈꾸는 동물 연구

덴마크 코펜하겐대 존 스펜슨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8월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그린란드상어의 수명이 400년 이상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막에 포함된 탄소 동위원소의 함량을 측정해 상어의 나이를 알아

냈다. 연구진은 그린란드상어가 수온이 낮은 북극 바다에서 살다 보니 수명이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수온이 낮으면 신체 대사도 느리게 진행된다. 실제 그린란드상어는 한 해 1cm씩 더디게 자란다. 그 만큼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포유류 중 하나라고 한다. 반면 같은 고래 종류인 밍크고래의 경우 수명이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북극고래의 긴 수명의 비밀을 벗기기 위해 국제 연구팀이 북극고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다른 포유류인 소, 쥐, 인간의 유전자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북극고래 유전자에서 특별한 변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찾아냈다. 하나는 암에 저항하고 노화와 DNA 회복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하나는 DNA 회복에만 관계했다.

이 두 가지 유전자의 독특한 역할 때문에 북극고래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두 번째 실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극고래에서 발견된 이 두 가지 유전자 변이를 실험용 쥐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쥐가 더 오래 살고 질병에 저항하는 힘이 강해질 것 인지를 관찰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적용할 예

정이다.

또 다른 최근 동물실험에서 미국 연구진은 세포를 초기 상태로 되돌려 젊음을 되찾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연구진은 앞으로 10년이면 인체실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라 호이아에 위치한 솔크(Salk)유전자연구소는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다 자란 세포를 초기 배아 형태로 되돌려 생쥐를 더 젊어 보이게 만들고 수명도 30%가량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인체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경우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해 치매와 암, 심장질환 등의 노화 관련 질병 가능성을 줄이고 수명 역시 100세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살아 있어야 모든 가능성의 길이 열려

사람이면 누구나 꽤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왜 사람들은 인간 수명 100세도 못 살고 죽는단 말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인생의 본질적 괴로움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다는 것은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흥미롭다. 그걸 일일이 재미있이 장황하게 설명할

순 없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골자만 여기서 푹푹 짙어 다루고자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죽고사는 문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정말 이러한 무지와 무책임함이 삶을 통째로 망친다. 과거도 그렇지만 작금의 시대는 너무도 변화무쌍하여 세상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도 변치 않는 사실은 인간은 살아 있을 때, 건강하게 일을 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 만고의 진리는 '존재함, 생명 있음'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성공, 업적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의 단명(短命)을 애매모호하게 인간의 운명, 자연의 법칙, 신의 섭리 등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 시작된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를 모르고 있어

오늘날 현대 과학이 자랑하는 눈부신 기술과 지식산업으로도 인간의 생로병사의 근본원인을 '이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인정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렬한 생명공학박사들과 노화학자들은 쇠병

사장(衰病死葬)의 원인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설만 무성하게 내놓는다. 그렇다고 고등한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중요시하는 철학과 종교계에서는 이 답을 알고 있는가? 한마디로 노코멘트다. 전 세계의 철학과 종교의 경전을 두루 살펴봐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고, 오히려 애매모호한 설들만 난무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로병사의 원인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었으니, 그간에 당연히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 인간은 놀라운 지능과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불로장생이란 인류의 오랜 꿈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하는 이유와 원인이 밝혀져야 됴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불로장생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전력투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건지에서 불로장생을 충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케 하는 '피의 원리와 생명의 법도'는 꼭 막힌 우리의 가슴속을 시원스레 뺏겨 줄 것이다. 여기에 실린 피의 원리와 생명의 법도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한 점의 의심 없이 120세 150세, 아니 영생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김주호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Secret of Immortality' (Immortality's Secret) book.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새책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 중', '팔만대장경의 비밀 장수정판', '감로의 道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리라', '기존불교를 뒤엎는 석가세존의 말씀',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열반경 상 보살마하살은 석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불법승 삼보는 진삼보(眞三寶)가 아니다.',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지 못했다.', '석가세존은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실하지 못했다.' The book is by author Seok-su Nam, published by Seungwon, priced at 15,800 won.